

# Tim Gombis 박사 , 갈라디아서, 세션 5, 갈라디아서 3장

© 2024 팀 고킴비스 (Tim Gombis ) 및 테드 힐데브란트 (Ted Hildebrandt)

갈라디아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Tim Gombis 박사입니다 . 갈라디아서 3장 5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다섯 번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갈라디아서 3장을 살펴볼 예정인데,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로마서 7장을 제외하면 바울 본문 중 가장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주석과 갈라디아서 저작물을 읽어보면 이것이 가장 어려운 패치라는 문구를 일상적으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3장, 10장부터 14장, 즉 율법의 저주와 관련된 구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바울의 논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본문이고, 바울의 본문과 바울 신학의 많은 어려움이 일종의 견디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바울의 궁극적인 수사학적 목표는 갈라디아인들이 유대화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임을 명심합시다. 그는 기본적으로 갈라디아의 비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 선교사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해야 하며 유대인처럼 모세의 율법을 따르기 시작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하려고 합니다. 행위;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랬을 것이다. 또한 여기서 바울이 하는 진술은 추상적인 바울 신학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조직신학이 아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데 중점을 둔 매우 강력한 수사학 자료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해야 하는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점을 염두에 둘 것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말하면서 이 구절을 시작하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미혹한 미련한 갈라디아인들이 그 눈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공개적으로 나타났느니라. 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공개적으로 묘사되었다고 말한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글쎄요, 이것은 아마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했던 원래 설교를 언급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는 실제로 바울의 개인적인 설교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후 갈라디아에 도착하여 어쨌든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기적적으로 소생하여 다시 살아났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비록 배경이 꼭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그는 분명히 영망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4장에서 자신의 외모가 그들을 시험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여 주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 십자가 위에 피 묻은 구타당한 시체가 추악한 것처럼, 바울이 그들에게 제시하는 모습도 것처럼 추악하고 추악했으며, 그런 상태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맥락에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바울에게 나타내셨다고 언급합니다. 따라서 바울 자신의 이야기는 갈라디아에서 그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이 본문 바로 위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거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바울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구절은 또한 생각나게 하며, 이 메모는 또한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즉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는 2장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니 곧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니라. 내가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설교한 내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수행 사역 모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앞에서 헌신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행할 때, 그렇게 사역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풀어지는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공연.

어쨌든, 이것은 그가 원래 그들과 함께 있었음을 회상하는 작은 메모일 뿐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계속해서 2절, 다시 3절, 그리고 다시 5절에서 그들에게 수사학적 질문을 많이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알고 싶은 것은 이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율법의 행위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그는 다시 5절에서 율법의 행위 와 들음과 믿음을 대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행위와 믿음으로 듣는 것을 대조합니다. 또는 그 문구는 신실한 들음, 신실함을 가져오는 들음, 또는 믿음으로 듣는 들음으로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신실함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지는 압력 사이의 대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인 기독교 선교사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비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유대인의 정체성에 순응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율법 행위로 의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을 때 만든 이 모든 시작을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말해봐, 그게 어떻게 된 거야? 그것은 단지 신실함의 복음을 듣고 반응함으로써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유대인의 정체성을 받아들임으로써 일어난 일입니까? 분명히 대답은 그들이 바울이 선포한 메시지를 신실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채택함으로써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다음 5절에서 다시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지

문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채택함으로써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신실함을 이끌어내는 들음으로, 또는 믿음을 동반하는 들음으로 그렇게 합니까? 그런 것. 그리고 그는 단지;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칭찬할 만한 반응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절과 5절의 충실한 들음은 다음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직접적인 평행을 이룹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포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신실함의 반응과 직접적인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갈라디아서의 이 이율배반은 행하는 것과 믿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행위가 없는 것과 하나님의 행위의 하이라이트를 대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대조되는 점은 행동과 태도를 포함하는 두 가지 종류의 전체적인 인간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 행동과 내부 성향을 포함합니다.

대비는 아래에서 생성되는 일종의 응답입니다.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일종의 반응. 상상이나 기대, 인간의 조작, 인간의 반응 등의 세계에서 나오는 일종의 반응입니다.

반면 인간의 행동, 인간의 태도, 인간의 자세는 하나님의 주도에 대한 응답이다. 기본적으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자신을 묘사하면서 아라비아로 가라는 계시를 받고 갔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계시를 받았을 때 갔다.

그가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인간의 행동을 강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나 신실함을 구현하는 일종의 인간 행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인하지 않는 일종의 인간 행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대조되는 것은 율법 행위, 즉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복음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과 믿음이나 신실함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복음에 반응하는 것 사이에 있습니다. 바울도 3절에서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다면 그가 영으로 시작한 종말론적 경주에서 이 시작에 대한 기록이 이제 육신으로 완성될 것인가? 다시 말하지만, 유대인 정체성의 채택을 아래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반응과 연관시키십시오.

그것은 외부 세계의 계시에 의해 그들의 존재가 밝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간의 기대, 사회적 기준 등과 믿음이나 신실함에 대한 반응 사이의 대조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6-9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아브라함과 연관시킨다.

10절에서 14절에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실제로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하신 것과 대조 되는 것입니다 .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텍스트가 얽혀 있지만 우리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6절부터 9절까지 대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실제로 저주 아래 있습니다. 이 두 그룹, 곧 믿음의 그룹과 율법의 행위의 그룹이 갈라디아의 이 논쟁에 연루된 두 그룹의 사람들이라는 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1세기에도 추상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들을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안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모든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유대인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베드로, 바나바, 예루살렘 지도자들, 또는 모든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갈라디아 논쟁에 연루된 두 그룹에 대한 언급입니다. 따라서 나는 이 시점에서 갈라디아서의 논쟁 범위가 갈라디아서의 논쟁과 구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강조되고 있는지 여러분이 실제로 느끼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넘어서는 문맥에 적용하거나 적용하기 위해 이러한 진술 중 일부를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내 생각에 바울이 다루고 있는 현 악한 시대와 새 창조의 근본적인 신학은 다양한 맥락에서 전달 가능하고 강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 중 일부는 전략적으로 임시적이며 상황을 의미하는 문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갈라디아의 상황에 대해 매우 전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6-9절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신실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인용된 것이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은 일반적으로 1세기 경의 다양한 유대인 텍스트에서 모범적인 율법 준수자로 묘사됩니다. 이는 물론 그가 율법을 수여하기 이전에 등장한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상상에서는 아브라함이 다음과 같이 묘사됩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를 모범적이고 충실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바울과 유대인 선교사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면 질문은 아마도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유대인 선교사들은 한 가지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민족이 무엇이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입니다.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 그들은 갈라디아의 믿음에 속한 자라. 이제 그 진술은 그 상황을 넘어서 조금 더 쉽게 전달되지만 바울은 유대인 선교사들의 유대화 압력에 저항하는 갈라디아 그룹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8절과 9절에서 흥미롭습니다. . 아니 8절에서 바울이 아브라함이 원래 응답했던 메시지를 어떻게 나타내는지는 흥미롭습니다. 그가 응답한 메시지조차도 갈라디아의 상황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즉, 단일 민족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바울은 유대인 선교사들이 가져온 배타적이고 특수화된 복음이 단순히 성경과 공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 다양한 성경적 증거를 끊임없이 끌어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은 성경 메시지를 부적절하고 불충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9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복이 있다는 그의 논증의 이 부분을 결론짓는데, 여기서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신실한 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에 대한 응답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나머지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랑, 봉사, 자기 희생, 자기 증여 사랑, 성령의 열매 등의 행위를 통해 구체화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나 충실함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거기에는 또 다른 무리가 있는데 갈라디아의 다른 무리는 바울이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의 행위에 속한 무리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특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 그룹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갈라디아의 그룹에 대한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유대인이 아니며, 모든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0-14장의 구조는 실제로 두 가지 주장입니다.

10절은 13절과 상응하는 부분이 있고 그 사이에 11절과 12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논쟁이고 실제로는 두 가지 종류의 별개의 논쟁입니다. 이 구절 각각에는 바울이 한 주장과 그가 뒷받침하는 구약성서의 인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10-13은 다양한 해석의 대상이 되며, 이는 바울 신학과 관련된 문제들의 영원한 전쟁터가 됩니다. 10절과 13절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이 있는데, 10절과 13절의 첫 번째 주장은 율법의 저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의 저주에 관해 논할 때 도대체 무슨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글쎄, 우리가 전통적인 해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따르면, 바울은 모든 죄인에게 저주, 즉 보편적인 저주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 자신의 행위에 의존하는 모든 사람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율법주의에 반대하는 주장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암묵적인 전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암묵적인 전제를 연구해야 합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3장에 언급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바울 서신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암묵적인 전제는 율법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며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대부분의 루터교 및 개혁신파 해석자들 사이에서 발견됩니다.

이는 대부분의 개혁주의 환경에서 이 구절을 읽는 일종의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실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절의 첫 부분에서 바울이 한 주장이 있습니다. 그 주장은 이렇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인용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부분인 10a절의 주장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신명기 27장의 인용문인 10b절이 있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따라서 이 해석은 10a절에서 율법에 대한 순종, 즉 다소간 율법주의적인 순종을 통해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보편적인 저주를 봅니다. 그러면 10a절과 10b절 사이의 공백에서 발견되는 암묵적인 전제는 이것이다.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는 완전한 순종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신학이 작동하는 방식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한다는 가정 하에 율법주의에 의한 칭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나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이 보편적인 저주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의 기독교 복음의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13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모든 죄 많은 인류에게 선언하는 저주로부터 신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주장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글쎄, 나는 거기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선, 율법, 즉 모세의 율법은 내가 몇 차례 강의에서 말했듯이, 율법이 올바르게 이해한 것은 절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들을 구원하신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단지 사람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구원하시고, 그분의 사랑 안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에 살게 하신 다음, 너희가 내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 주십니다. 물론, 모세 율법에는 희생 제도에 기초한 지속적인 회복과 용서, 속죄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순종을 가정하거나 누구든지 완벽하게 순종할 것이라는 기대는 없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합의의 일부도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을 오해한 것입니다.

더욱이 그 때문에 바울은 모세 율법이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의 유대인 선교사들이 가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실제로 그 언급되지 않은 전제에 근거하여 논증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즉, 실제로 증명해야 하는 것을 결론으로 가정하거나 결론이 실제로 증명해야 하는 것을 증명으로 가정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그 시나리오에서 바울이 10a절에서 하는 주장과 10b절의 성경적 증거가 실제로 모순된다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암시된 전제가 그것을 만족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해석이 구약의 신학과 수사학적 상황에 기초하여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뜨거운 수사적 논쟁에 참여하고 있다면 결론을 향해 논쟁을 벌여야 합니다.

가정된 결론을 토대로 주장만 할 수는 없습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음, 다른 제안 하나를 언급하겠습니다.

이것은 Richard Hayes와 NT Wright 및 몇몇 다른 사람들이 취하는 해석입니다. 10b절에서 바울은 신명기 27장과 26장을 인용합니다. 이 해석에는 바울이 신명기 27장부터 30장 전체를 언급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바울이 10b절에서 신명기 27장과 26장을 인용할 때 그는 언약의 저주를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10b절에서 이스라엘이 언약적으로 저주받은 백성의 일부라는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언약적으로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언약적으로 저주받은 백성 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결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이 현재 포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바울이 그 신학 위에 일종의 건물을 짓고 있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합니다. 나는 반드시 망명을 이유로 그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울과 그 시대의 다른 유대인들이 그 나라를 여전히 포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여겼던 정도는 여전히 진행 중인 논의입니다. 지금은 이 문제를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7장과 26장의 인용은 실제로 언약의 저주를 언급하는 부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신명기 27장 본문의 일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범죄와 고의적인 죄가 너무 극악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백성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이니, 만일 그들이 언약 백성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27:15부터 신명기 26장까지 이어지는 본문의 일부입니다. 이 사람들 중 상당수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상이나 부어 만든 신상을 만든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욕되게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웃의 경계선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길에서 눈먼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들은 언약백성에서 제외되어야 할 개인들이다. 26절에서는 단순히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요약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로서 언약백성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10b에서 그 요약문을 인용합니다. 나는 이 구절에 대한 포로 해석이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바울의 인용은 만약 그들이 추방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언약백성들에게 가져올 개인들에

대한 저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구절, 즉 10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지는 첫 번째 논증, 또는 단지 10절과 13절을 포함하는 논증이 이러한 노선을 따라 이어지는 특별히 임시 논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 갈라디아서 2. 18과 관련하여 앞서 제안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즉, 바울은 유대인 선교사들이 민족주의적, 인종적으로 포용적인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하고 또한 배타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주장하는 유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이 일관성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호 배타적입니다. 이 두 입장은 상호 배타적이다.

그들은 함께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논쟁을 벌이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여 그들을 열방 가운데에 놓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다민족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을 시각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하겠습니다. 모세의 율법 안에 있어야 한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그들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다국적 민족을 세우시고 계시는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든지 여기에 있으면 저주 아래 있다는 고백을 하면서 자신을 여기에서 발견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충실하려면 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실제로 스스로 율법의 저주를 자초하는 사람들로 만듭니다. 이제 내 생각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율법은 실제로 저주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는 죽은 사람이며, 기본적으로 그를 저주할 수 있는 모세 율법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그는 또한 이방인과 어떤 관계도 가질 수 없다고 상상하는 모세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인 기독교 선교사들의 입장에서 모세 율법을 오해하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들 자신의 이해로는 그들은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범법자들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하는 주장은 이것이다. 갈라디아의 율법 행위에 속한 모든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의 율법 안에 머물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저주를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 기독교 선교사 여러분, 그리고 그 가르침에 복종하는 갈라디아 교인 여러분은 일관성이 없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해석을 취하는 이유는 그것이 모세가 율법책의 말씀을 확증하지 않는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는 신명기 27-26장의 본문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과 일치합니다.

또한 내가 언급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2-18장에 나오는 바울의 주장을 고려하면 이치에 맞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에 대한 해결책은 내가 13 절에서 말했듯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을 토대로 신학화한다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모든 인류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모세 율법이 일종의 국가 헌장, 성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주어져서 하나의 나라, 곧 이스라엘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았으므로 율법의 저주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비기독교인들을 이해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나는 때때로 죄인이나 비기독교인이 율법의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저주를 피하는 방법에 관해 복음을 제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의 상황과 구체적으로 관련이 있는 바울이 정리한 주장이며, 그가 다른 곳에서는 이 주장을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좋아요, 이것이 10절과 13절의 첫 번째 주장입니다. 당신의 교리는 일관성이 없고, 상호 양립할 수 없으며,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

두 번째 주장은 여기 11절과 12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전통적으로 이 두 구절은 구약성경 본문에 의해 뒷받침되는 바울의 주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 두 구절은 대체 역학을 말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의인이 믿음으로 살거나 의인이 믿음으로 살므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율법이나 율법주의에 있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읽혀진다.

그러므로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은 일반적으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며, 반대로 율법과 믿음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역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율법은 행함과 관련이 있고 믿음은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하는 것과 존재하는 것, 행하는 것과 믿는 것, 행위와 내면의 태도 사이의 대조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전통적인 해석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율법이 믿음을 칭찬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향한 일종의 믿음의 자세를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믿음과 관련이 있는데,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게다가 바울은 어느 곳에서도 수동성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실제로 편지를 통해 명령을 내리고, 권고를 하며,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삶으로 여깁니다. 나는 Paul이 여기서 약간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11절을 이런 식으로 읽었고 실제로 나는 헤이즈(Hayes), 갈라디아서에 관한 위대한 책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승리(The Triumph of Abraham's God)의 브루스 롱네커(Bruce Longenecker)와 11절에 대해 약간의 반론을 요구하는 NT 라이트(NT Wright)의 말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 분명합니다. 최근의 많은 주석가들은 또한 그 구절을 재번역하거나 재번역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율법은 믿음이나 신실함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 살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바울이 여기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맥락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채택함으로써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선택은 갈라디아서에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채택하는 것, 아니면 믿음이나 신실함을 채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이 율법을 언급할 때 그는 모세의 율법을 추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유대인 기독교 선교사들이 그곳 갈라디아의 비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모세 율법을 채택하도록, 즉 할례를 받아 유대인이 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대한 한스 디터 베헨(Hans Dieter Betzen)의 주석은 갈라디아서의 수사학을 분석하면 바울이 이 편지에서 더 큰 개념을 줄여서 사용하는 많은 용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11절과 12절에서 그가 율법이라는 용어나 율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유대인

기독교 선교사들이 비신자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갈라디아의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유대화하라. 나는 바울이 12절에서 하는 말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한 말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것에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성경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율법인 토라를 사랑했던 1세기 유대인으로서 토라가 믿음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토라를 폄하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갈라디아인 여러분에게 율법을 받아들이라고, 즉 유대인이 되어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율법은 여러분에게 신실한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실한 길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서로를 위한 자기희생적인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구체화입니다.

그래서 다시 수사학적 상황으로 되돌아가서 바울은 여기에서 가해지는 압력을 나타내는 법을 사용합니다. 이 시점에서 내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거나 생각하는 비유는 여기서 바울의 수사가 그가 다른 곳에서는 재생산하지 않을 수사라고 말할 때 내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모세의 율법이 신앙이 아니라고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았습시다.

수사학적으로 전략적인 상황에서는 평소라면 하지 못할 말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 말은 이것이다. 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은 제이크이고 작은 아들은 라일리입니다. 그리고 큰 아들에게는, 아이를 갖기 전에, 나는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언젠가 아들을 갖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들과 함께 스포츠를 하고 싶고, 아들과 함께 스포츠를 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구, 농구, 골프, 축구에 대한 나의 사랑을 아들에게 물려주세요.

결과적으로, 스포츠에 대한 나의 사랑을 큰 아들에게 물려주려는 나의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는 농구, 야구, 축구, 골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음악, 예술, 특히 스케이트보드에 대한 사랑을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총명한 청년이 되었어요. 지금은 그 사람이 11살이나 12살쯤 되었을 때 저는 그 사람을 침대에 눕히고 항상 아들들과 함께 침대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하루에 대해 웃고, 우리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제이크의 이층 침대에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는 이층 침대 꼭대기에서 자고 있었고, 그는 침대 위로 몸을 기대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스케이터가 되는 것을 지지해 주나요? 그리고 대부분의 밤에는 정신적으로 공허한 상태지만, 그 순간이 바로 그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했어요, 제이크, 내가 당신에게 괜찮다는 겁니까, 당신이 스케이터인 것도 괜찮아요, 그건 제가 당신을 위해 선택할 것이 아니죠, 그리고 당신이 야구, 농구, 축구를 그런 식으로 좋아하지 않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그래? 그리고 그가 말하길, 내가 스케이터가 되는 것을 지지해주나요? 그리고 그 순간 정신적으로 정신이 맑아져서 그를 스케이트 공원에 데려다 주곤 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이크, 당신이 스케이터인 게 정말 좋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프파이프를 연주하는 것을 처음 본 날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나는 그가 본 모든 트릭을 언급했고, 그가 친구들과 스케이트를 타러 갈 때, 그가 행동하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그가 그림을 그리고 그의 사랑을 볼 때 내가 얼마나 그를 자랑스러워하는지 말해주었습니다. 음악을 위해 기타를 독학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그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내 아들이라는 거니까. 그 순간 나도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어떨까. 만약 그 순간 내가

제이크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어땠을까? 제이크, 당신이 스케이터인 게 정말 좋아요. 나는 야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어리석은 게임일 뿐입니다. 누가 골프에 관심이 있나요? 그냥 멍청한 게임이에요. 야구,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야구에 관심이 있나요? 그것은 단지 멍청한 공을 던져서 던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게임입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야구에 별로 관심이 없다.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당신이다. 자, 만약 그 순간 내가 6년 동안 그의 야구 팀을 코치했던 나의 다른 아들 라일리가 듣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야구 경기를 보러 가곤 했습니다. 우리는 마이너리그 야구 경기를 함께 보러 가곤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친구들을 모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싱글A 야구팀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일리와 나는 야구를 하면서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멍청한 게임에 관심도 없다는 얘기를 그 사람이 들으면 어찌지? 그것은 아마도 그에게 약간의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아빠, 야구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특정한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아시나요? 나는 야구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의 추상적 이해를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에게 야구를 좋아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나는 야구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길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바울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라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한 것은 모세의 율법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압력, 즉 유대인 정체성을

취하고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따르기 시작해야 한다는 압력에 맞서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모세의 율법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안들이 직면한 선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두 번째 주장은 율법, 즉 유대인의 정체성을 채택하는 것이 신실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레위기 18장 5절을 12절에서 인용합니다. 이 일을 행하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은 모세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실제로 모세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고 바울이 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가 반드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구약 전체에 걸쳐 여러 번 사용되는 레위기 18장 5절의 인용문으로, 원문맥에서도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임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갈라디아에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응답하는 길은 믿음의 길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지 실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모세 율법을 정체성의 표시로 채택하는 길을 선택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따라서 11절과 12절을 읽는 방식, 갈라디아서 3. 10~13절을 읽는 방식은 모세 율법을 만듭니다. 성경 신학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모세 율법은 피스티스 , 즉 믿음을 요구하는 복음과 일치하게 됩니다. , 또는 충실함.

율법은 항상 신실한 반응을 요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바로 그것이 설교하셨고, 물론 바울도 그의 사역에서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많은 성경 신학이 그 대조에 얽매이는 율법과 믿음 사이의 대조를 제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모세의 율법이 그 일을 하고 신약성경도 믿음을 요구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정당화해야 합니다.

그것은 또한 신약성경 복음을 더 이상 행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읽는 적절한 방법이 아닌 행함과 믿음 사이의 대조를 제거합니다. 그것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내부 태도와 외부 행동을 포함하여 생명을 주는 행동 방식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에서 14절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제로 율법의 저주에 대한 결론과 관련하여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다고 언급합니다. , 나는 바울이 이방인 기독교인을 포함하지 않고 유대인 기독교인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곧 너 베드로와 너희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나 바울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하나님의 다민족과 연합하게 하셨느니라 ,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는 이 새로운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우리, 즉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주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사 우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는 바울이 실제로 14절에서 두 그룹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먼저는 이방인들에게 부어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는 우리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곧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니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 주시리니 이는 우리로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을 통한 성령의 약속.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열방, 즉 이 하나의 다민족 가족 안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부어졌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입니까?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방인입니다 .

그리고 배타적인 복음을 옹호하는 집단이나 전적으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계신 곳, 성령이 계시는 곳,

아브라함의 축복이 쏟아지는 곳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 할 주장이며,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이에 대해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6-14절을 결론적으로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는 축복하고, 율법의 행위 곧 가르침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에 속한 사람들은 참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독점적인 그룹에 속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3:15-29의 나머지 부분에서 바울이 하는 주장의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모세의 율법을 말해야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부분을 지우고 다른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특히 모세의 율법과 아브라함 언약과 관련하여 바울이 하는 이러한 주장 중 일부를 이끌어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역사, 구원 역사의 큰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에서 그는 아브라함과 모세의 율법에 대한 약속을 연관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5절 이하에서 그가 하는 첫 번째 주장은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은 모세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일종의 참된 이해, 즉 올바른 이해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전략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모세의 율법 사이의 거리를 넓히는 것입니다.

그 곳 갈라디아의 선동자들이나 선생들이 그들을 하나로 모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려면 모세의 율법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즉, 모세 율법이 창조한 민족, 이스라엘에 속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아브라함 언약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들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은 모세 율법이 하는 것과는 다른 일을 합니다.

15절에서 그는 한 번 맺은 언약은 변경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기본적인 법적 원칙에 불과합니다. 16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많은 씨를 가리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과 너희 씨를 가리켜 말씀하시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로 해석한다고 말함으로써 이런 급진적인 주장을 합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려낸다면, 이것이 여기서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의 다이어그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약속은 그리스도에게 하신 것입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씨이신 그리스도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법은 나중에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율법은 430년 후에 오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무효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모세 언약은 일종의 바울의 방식입니다. 그가 모세 율법에 대해 경멸적으로 말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서 모세 율법을 어느 정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 율법은 훨씬 나중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약속과 동일연속적이지 않습니다.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다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은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유업이 율법에 근거한 것이라면, 더 이상 약속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매우 다른 종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며 결코 그 성격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9절, 그러면 왜 율법이 있습니까? 법은 왜 생겨난 걸까요? 바울은 여기서 네 가지 대답, 즉 율법이 생겨난 네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우선 19절에 범법 때문에 추가한 것인데, 바울은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a, 우리는 이것을 해석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이 죄나 범법을 자극하기 위해 율법이 주어졌다는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범법을 식별하기 위해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이 좁은 개인주의적 구원론의 렌즈를 통해 모세 율법을 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바울이 여기서 구원 역사의 대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 목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말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율법은 율법을 지키도록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별하여 불순종과 범죄로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시간이 지나도 구별되게 남아 결국에는 씨앗인 메시아를 낳을 구별된 백성을 부르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범법으로 인해 모세 율법은 단지 결속력 있는 백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지, 그들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범법 때문입니다. 둘째, 바울은 천사들이 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율법은 율법을 주신 영광을 강조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율법을 수여할 때 천사들이 참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것은 율법이 중재의 성격에 더 가깝다는 것을 바울이 나타내는 일종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사들을 통해 그것을 주십니다. 비록 그것이 유대 전통이 말한 것보다 조금 더 밀어붙이는 것이지만 말이죠.

또한 19절 끝 부분에는 중보자 곧 모세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보자의 대행으로 말미암고 마지막에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옵니다. 따라서 모세 율법에는 일시적인 제한이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그 약속을 이행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성되면 모세 율법에는 일시적인 제한이 있게 됩니다. 이는 유대인의 정체성에 관해 많은 다른 신학적 질문을 제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에 들어 가지 않을 것입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중보자가 한 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NASB는 단지 바울의 진술이 간단하기 때문에 편파를 추가합니다. 이제 중보는 한 편을 위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 매우 비밀스러운 진술입니다.

이 구절은 약 400가지 해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명한 구절입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겪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른 해설자들에게 의존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모세의 율법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중보자 곧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습니다.

바울도 천사의 중보를 통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나서 그는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보자는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중보자는 한 사람을 위하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의 위대한 신앙고백인 쉘마를 바탕으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 율법 마련에는 중재가 포함됩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다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반면에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다면 , 당신은 즉시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됩니다. 거기에는 친밀감이 있습니다 .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약속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싸여 있다면 당신은 즉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중재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 신분으로 인해 하나님을 안다면 거기에는 중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세나 모세의 율법입니다. 아주 미묘한 힌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Paul의 말은 비밀스럽습니다. 나는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매우 비밀스러운 해석 싸움과 관련하여 명심해야 할 것 중 하나를 생각합니다. 또는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의 비밀스러운 진술과 관련하여 바울이 동료 진보적인 바리새파 고대인과 논쟁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서 학자들은 그 자신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주장이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맹렬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나는 갈라디아 이방인들이 반드시 그들에게 설명할 필요 없이 이 중 어떤 것도 얻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약속(21절)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아니면 경쟁하고 있지 않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이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별말씀을요. 결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일 능히 생명을 주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것은 결코 모세의 율법이 생명을 주는 역할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바울이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것을 전개한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허리가 죽었고 아내의 태가 죽은 것과 다름없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내 말은, 약속은 생명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90세 아내와 100세 노인이 있었던 기적의 아이. 그러나 그는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모세 율법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다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율법은 여전히 성경이지만 율법은 그러한 삶을 가져오도록 의도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면에 22절에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성경, 곧 모세의 율법은 죄 아래 갇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함을 증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종말론적 생명을 가져오시는 메커니즘이 아닐 뿐입니다. 그것은 약속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바울이 여기 23절과 그 다음에 나오는 마지막 주장은 이 언약적 합의의 나머지 부분을 설명합니다.

즉, 그는 법이 어떻게 일시적인 조치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리스도 앞에서의 신실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실함을 말하는 대용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갇혀 있거나 함께 갇히거나 함께 갇혔으나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서는 달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까지 우리의 가정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번역의 일부를 한탄합니다. NASB 번역에서 이탤릭체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율법이 주어진 경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루터교

해석이나 사람들을 때려눕히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시오.

이것은 까지 번역될 수 있는 일시적인 진술일 뿐입니다. 율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을 하나로 모으고 인도하며,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들을 하나의 별개의 백성으로 묶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의 현실이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현실로 인도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가정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25절. 이것은 이방인과 관련이 없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진술이다. 그러므로 모세 율법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제한 기능과 관련하여 말하면, 모세 율법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제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다민족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로운 가족과 나란히 세워지는 이 마련이 있습니다. 그 제한 기능은 더 이상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26절).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청중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유대인도 그리스인도 없고 민족도 무관하며 할례받은 사람과 할례받지 않은 사람, 유대인, 이방인이 없는 이 새로운 현실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의 일부인지 정의하는 것과 관련하여 레이더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입니다. 즉, 역사적으로 모세 율법에 속한 모든 사람들, 즉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새 가족에 속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가족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함께 아브라함의 축복에 참여하였고, 그들은 모두 약속대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의 끝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의 주장은 엉켜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언약적이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약속과 모세의 율법 사이의 관계를 포함하고 갈라디아서 3.11의 하박국 2.4절의 진술을 포함하여 레위기에 이르는 신명기의 측면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다시 바울은 자신이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있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동의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바울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화하지 말라고 설득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그는 두 번째 청중인 유대인 기독교 선교사들에게 기본적으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이 이방인들에게 압력을 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유대화하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이 복잡한 내용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